

사순 제 2 주일

기도서 P 252 A해

제1독서 (창 세)	12, 1-4a)
제2독서 (떠모후)	1, 8b-10)
복 음(마 태)	17, 1-9)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장 사 록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④ 2935

□ 감 론



하느님의 아들 예수

유 영 도 신부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해서 들려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레아 전교여행을 마치고 십자가상의 수난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타볼산에 오르신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변모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신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눈과 같이 눈부시고 빛나는 구름이 그분을 에워싼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모는 그분이 천상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요, 부활한 육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정체는 수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로써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상의 수난과 죽음의 배후에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영광과 정체를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은가?

제자들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어 무력하게 죽어갔던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모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상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므로써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밝혀질 참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가 일시적으로나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사순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이 수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안에 부활의 영광이 깃들어 있었고 그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명심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덕진천주교회 보좌신부>



임금님의 귀

옛날에, 뱀같이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임금께 특별한 청을 드릴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놀랍게도 그 신하는 더 높은 벼슬도 싫다 하였다. 물론 금은 보화도 싫다 하였다. 그리고는 너무나 청렴 결백한(?) 제의를 했다. 오직 하나, 매일 아침마다 임금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소망하였다. 너무나 어이 없는 주문에, 임금은 기꺼이 그 청을 들어 주었다.

아침마다 다른 신하들의 눈초리는 진기한 구경거리 때문에 빛나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의 꽃도 피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임금의 귀에 대고 똥가름 소곤거리는 모습으로 비친 것이다. 임금의 들도 없는 측근으로 여겨진 것이다. 매일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궁중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문제의 신하와 가까워져야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드디어 사건은 터졌다. 그 신하의 집에 재물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로가 말이 없는 가운데 보화를 주고 받았고, 은밀한 뒷속말로 오고 갔다. 음흉한 속셈이 멋들어지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임금님에게는 청렴하게 보이는 것쯤을 안고, 임금이 주겠다던 보화는 색다른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기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더러 있다. 꼭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태양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예수를 본 베드로는,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곳에 장막을 짓고 오래 오래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마음일 것이다. 임금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영광을 대개는 원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광분하는데 있는 것이다.

숲 정 이 산 채



잠을 껴시다!

사순절 재제(齋戒, 封齋) 규정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와 성인 성녀들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남에게 자신을 빼돌려 위하여 신자들이 하여금 재제(禁食을 깨끗이 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는 일) 하기를 명한다.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단식(斷食)과 금육(禁肉)을 겸해 지키고, 사순절의 매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킨다. 이는 예수의 수난(受難)을 기억하며 속죄하기 위함이다.

단식재(大齋)는 만 21~60세까지, 금육재(小齋)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킨다.

* 한국 천주교회의 소제(禁肉齋) 관면(寬免)

주교단의 상선에 의해 교황청은 한국 천주교회의 소제 관면(금육에 대한 면제 허락)을 1966년 10월 12일부로 다음과 같이 인준하였다.

1. 한국 모든 교우들은 사순절 중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소제(小齋, 禁肉齋)가 관면된다.
2. 한국 모든 교우들은 사순절 중 금요일이라도 외출하여 식사하는 경우는 소제가 관면된다.
 - 한편 포교 성성에서는 소제 관면을 하는 기회에 「자선 사업」과 신심 행위를 대신할 것을 신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재제(齋戒) 규정을 잘 지키면서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도록 하자.

사순절 헌금에 최대의 성의를!

부족한 사제 양성, 성소 후원을 위해서 사순절 성금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저금통의 동전 한푼 한낱이 신학생의 쌀이 되고 책이 됩니다. 교우들의 뜨거운 정성을 빕니다.

—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

국제 성체대회 참가 안내

금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불란서 루르드에서 개최될 「제42회 국제 성체대회」에 우리 한국에서는 120명을 참가시키기로 주교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수를 신자비율로 할당, 전주교구에서는 7명이 배정되었다.

이에 교구에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각 본당 신부님들의 업선, 추천을 받아 7명을 심사 선정하여 주교회의 사무처에 제출토록 각 본당에 봉지한 바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본당 신부님과 상의, 일단 대회 참가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신부님과 교구장님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여행은 대회참가 외에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루르드, 파티마, 로마 등 성지순례도 겸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것은 각 본당 신부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 표 구 일 절
- 서 화 매 매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딩)
전화 ㉠ 6 4 4 5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겠읍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 5 6 6 9 번
주 최남수(아팰로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 6900 야간 ㉠ 0496
金 樂 均(요셉)

□ 교회 전례

제 구

1. 성체포: 미사 시작전 작은 아마포를 제대 위에 펴 놓는데 이는 성체와 성혈을 담은 성작과 성반을 여기에 놓으며 떨어진 성체의 조각들을 쉽게 모으기 위해서다. 이를 「코르뵤랄레」라고 함.

2. 성작: 제구 중에서 제일 존귀한 그릇으로 예수님이 최후 만찬시 쓰신 것과 같은 잔이고 성혈만을 담은 것이다. 이는 주교님이 축성하고 성혈을 담아야 하므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적어도 안면은 도금해야 한다.

3. 성작수건: 영성체 후 성작과 사제의 입을 닦는 작은 아마포 수건이다.

4. 성반: 성작과 같은 질로 만든 접시인데 제병을 담는데 쓰고 주교님이 축성한다.

5. 성합: 성체를 모셔두는 그릇으로 성작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도금해야 하고 일반인은 만지지 못한다.

6. 성작개: 성작에 무엇이 못들어가게 덮은 자그마한 네모진 뚜껑이다.

7. 주수병: 보통 유리나 쇠로 만든 것인데 미사때 포도주와 물을 담은 그릇이다.

8. 성광: 신자들에게 성체를 보여 조배하게 하고, 성체강복이나 성체거동때 쓰는 것으로 최소한 도금해서 사용한다.
(김기수 신부)

사제생활 쇄신 집중 세미나를 위한 안내(예고)

교구 사제들의 사목활동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검토 및 방향을 제시하고 사제생활의 쇄신과 영성 그리고 보다 깊은 일치성을 위한 3주간 동안의 연수 교육을 앞두고 미리 교우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세미나

① 기간: 1981. 4. 27(월) 오후 2시부터 5. 16(토) 오후 2시까지

② 장소: 서울 상지회관(서울 성북구 돈암2동 413-79) 전화 92-3547, 5194

③ 대상: 전주교구 사제 전원(은퇴신부님 자유)

2. 유의사항

① 전례: 세미나 기간동안 각 본당은 일체 미사가 없고, 주일에는 말씀의 전례(공소예절)로 대신합니다.

② 미사신청: 세미나 동안 신부님들이 그 장소에서 미사를 봉헌케 되므로 이 기간동안 미사를 바칠 분은 세미나 전에 미리 각 본당 신부님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혼인성사: 세미나 동안의 혼인성사 예정자는 미리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면회: 세미나 동안 일체 면회가 금지됩니다.

⑤ 기타 이 기간동안 병자성사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교구에 연락, 상의하시면 됩니다.

삼례, 합열 본당에 새 수녀님 부임

오랜 목마름으로 손뼉아 기다리던 수녀님들이 두 본당에 새로 시무하게 됐다. 모두 성체회 소속 수녀님들.

삼례 본당은 지난 2월 25일부터 15년만에 다시 수녀님을 맞게 됐고, 합열은 수녀원 단장을 마치고 모실 준비는 끝났으나 소임 발령 수녀님의 병환으로 잠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부안 본당 유치원 개원

귀여운 아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꽃 동산, 새 유치원 하나가 부안 본당에 새로이 신설됐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 본당 신부님과 전 교형들의 열의와 끈질긴 노력의 보람으로 70여명의 새 원아들과 부모님들의 합창 속에 성대한 개원식이 베풀어졌다.

마냥 큰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힘찬 발전을-



K 신부님

이 루 시 아

언제던가 우수가 지난 2월 17일이던가 봄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날, 작년 이만베 산 분홍 바바리가 온통 흙탕물이 튀어 후줄근해진 모습으로 친구와 함께 상한 짐승처럼 지쳐 널부러진채 이리 병원에 조그만 진찰을 받으러 간적이 있었다.

다행히 어떤 교우의 도움으로 복잡한 절차를 피해 마약 안과 과장실로 들어가려다가 1월에 옮겨 가신 신부님을 만났다.

「웬일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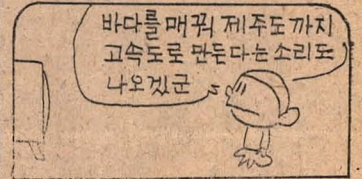
「아 그저 심심해서 놀러」.

조금 후 5층의 주간호원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 본당 환자가 입원해서 자주 방문 위로해 주었는데 다른 성당으로 옮겨가신 후에도 잊지 않고 혹 불편한 일일 있어도 그곳에서 치료받지 않고 꼭 이곳에 오셔서 검사결과 환자인 에스더 할머니 등을 방문 기도해 주고 간다는 것이다.

참으로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는 아름다운 일이다. 요즈음 신자들의 현세 지향주의 즉 아무리 좋다가도 돌아서거나 타지로 이사하면 곧 잊어버리는 현실적인 이즘의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K신부의 행동은 모든 신부님들의 귀감이 될만했다.

자 누구 누구를 말할게 없다. 사제든 신자든 성한 사람은 들춰치고라도 앓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좀 뛰어들어 봐 주자. 그리하여 가엾이 쓰러진 양이 어디 상한데나 없는지 좀 바라봐 주자.

요심이 (397) 김병오



꽃! 꽃! 꽃! 꽃다발
새 푸르실리스타 탄생축하!

진 선 미 꽃 집

19일 쉐타에서
적적 제작, 판매, 봉사합니다
진주극장 골목 전화 0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동양 매듭

- ◆ 실내 장식용 벽걸이
- ◆ 혼수용 노리개 종류

환 <개인 지도> 영
그룹 출장 지도

전북은행 본점 후문 앞

7광구 다방 입구

미라 고전 매듭실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엄
McGregor Buckingha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04451

유 율 리 안 나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종 싱크
백 곰 표 썩 크 주 방
(東南綜合 淸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06900

金 樂 均(요셉)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대학생 연합회: ① 화요미사(신앙·교회사 강좌) 일시-24일부터 오후 6시, 장소-회관
② 18일 오후 6시 30분 영화상영, 제목-동물농장, 장소-회관
③ 공동체 목상회: 일시-3월21일~22일, 장소-가톨릭 센터
2. 남성 16차 꾸르실료: 사정상 여름철로 연기합니다
3. 성가대 지도자(지휘·반주) 모임: 21일<토> 오후 2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4. 신앙 대학 강좌: 일시-3월 20일 오후 2시~22일
장소-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참가비-3만원 ※ 분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을 것
5. 안복진(둔물동)·강덕행(순창)·조정오(임실) 신부님의 영명축일(3월 19일): 축하연 없습니다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박 준 근
보좌 신부 박 준 근
사도 회장 박 준 근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강단
2. 성심부녀회 피정: 3월 20일 어머니미사부터 5시까지
3. 사순절 교육
① 분당 신심단체 및 성인 17~19일 오후 7시 30분
② 학생(중·고·대학) 24~26일 오후 7시 30분 강당
③ 사순절동안 기도와 매일 미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4. 연도대회: 3월 22일 오후 2시 각 신심단체 대항
5. 불판공: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별지 유인물참조)
판공전까지 교무금 미신입하신분은 신입합니다
6. 가정방문: 3월 17일부터 경원·교사·기타
7. 유아세례: 3월 27일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8. 오월의 마돈나 꾸리아 아치에스: 29일 오후 2시
9. 삼지회: 14일 오후 7시 성당
10. 대학신입생 환영식: 19일 오후 6시(지도신부 사무실)
대상-분당 소속 대학 재학생 전원 및 신입생
11. 그레고리오 중앙 청년 합창단원 모집
기간-3월 8~22일점수처-사무실 장수너님
신입단원 환영식-22일(저녁미사 후)
감사헌금: 익명(5,000원)
□ 지난주 봉헌금: 523,94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김 희 남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축! 분당신부 영명축일: 19일<목>
2. 가정방문: 16일-완산동, 17일-화산동, 18일-태평동
1·2·3번, 20일-태평동 4·5·6·7번, 23일-진북1·2번,
24일-진북3·4번, 25일-기타
3. 꾸르실리스트 모임: 19일 저녁 6시 분당에 모임
4.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완납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33,93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철 수

1. 가정방문: 17일(12번), 18일(11번), 20일(10번)
2.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3. 꾸르실료 교육 신청 바랍니다
4.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한형수 ② 김낙완,
신자들의 기도-조종근
□ 지난주 봉헌금: 186,390원 교무금: 310,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성모회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여성 꾸르실료 11차: 16일~19일까지
3. 성요셉 대축일(3월 19일): 분명축일 축하
4. 학생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후, 정주복 선생님 지도
5. 구세주의 모후 Pr(남성)에 가입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6.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① 한종택 ② 이규철, 기도-홍성조
□ 지난주 봉헌금: 317,27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중 근
사도 회장 박 준 근

1. 제15차 성령세미나 개최: 내일부터~21일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점수-16일 오후 1시부터)
2. 은혜의 밤: 27일<금> 철야,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축!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19일<목> 성요셉 대축일
분당에 오셔서 수고하시는 나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4.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오후 7시 30분~9시30분
5. 수녀님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
6.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7. 장학선발: 노송신용조합에서 3월 25일까지 장학생
을 선발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민수가 전체
9. 지난주의 예비자봉헌: 11명, 이웃전교에 노력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52,2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환
보좌 신부 박 준 근
사도 회장 이 중 두

1. 피미시움: 오후 2시 2. 성화회: 공식미사 후
3. 울뜨레아: 3월 28일 오후 6시
4. 구역장·반장 임명장 수여: 공식미사 후
5. 다음주 가정방문: 중앙·경원·노송동
6. 주일학교 어머니회 정기총회: 22일 공식미사 후
7. 중·고등학생회: 3시-입시임원회, 4시-대청소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우, 독서-① 최병래 ② 범덕배
공식미사: 해설-이영자, 독서-① 장금태 ② 김홍기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 이승호 ② 이진홍
□ 지난주 봉헌금: 491,12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유 영 도
사도 회장 양 상 열

1. 반석회 모임안내: 19일 저녁 7시 분당,
젊은이들 참여를.....
2. 젊은이들은 일요일 저녁미사를 이용하세요
미사후 성가연습, 레크리에이션
3. 중·고생 쉼 회원모집
일요일 오전 9시, 학생미사 후 사제관 2층
4.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덕진사건관 관대(60,000원), 조준석(병풍1점), 반석
회(22,000원), 진복회(20,500원), 홍례례사(10,000
원), 이마리아·요안나(각 5,000원 관포)
5. 차주독서: 10시 해설-이영남
독서-① 김홍철 ② 이남연, 기도-사도회장
저녁해설-진연심, 독서-① 이서주 ② 한인수
기도-최판수
6. 봉헌금 신입: 81년도 미신입하신 분들은 3월 22일한
신입 바람. 기한이 넘으시면 30% 가산 책정함.
□ 지난주 봉헌금: 404,05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애령회의 임원 및 봉사단
회장-임마리아, 부회장-배바울라·전골롬바
봉사단-하바울라, 고아멜라, 박말라맷다, 임아가다
성아가다, 조메레사, 한아멜라, 송아나다시아, 안데
레사, 조요셉피나, 소울리아, 조엘리사벳
2. 새로 출발하는 "평화의모후" 프레스티지을 축하합니다
담당-김용무, 부담당-문대현·서기숙
3. 성모기사회 피정: 22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정각
4. 중·학생 미사: 매주 오후 3시에 있음
5. 성탄시에 영세한 가정 방문: 18일(오후), 20일(오후)
6. 금주 전례담당: 독서-① 채수현 ② 김용무
신자들의 기도-중윤자·유리안나
□ 지난주 봉헌금: 144,280원 어린이 헌금: 2,280원
교무금: 104,500원